

# EU, 주요 농산물 수급에 관한 중기 전망 공표 가금육과 식용란 소비 증가로 생산 증가

유럽위원회는 최근 2006~2013년 EU에 있어서의 주요 농산물 수급에 관한 중기 전망을 공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가금육 및 식용란이 소비 증가와 함께 생산도 증가를 계속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 1. 세계의 약 14%를 점하는 EU의 가금육 생산

FAO에 의한 2004년 EU의 가금육 생산량은 세계의 가금육 생산량의 약 14%를 점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 의하면 가금육 생산량은 1,099만 6천톤(도체 기준)이고, 국가별로는 프랑스 184만3천톤으로 가장 많고, 영국 157만4천톤, 스페인 131만톤, 이태리 112만8천톤, 독일 101만7천톤 순이다.

유럽위원회의 중기 전망에 의하면 2005년까지 안정적 추이였던 가금육 생산이 2006년은 EU에서의 H5N1형 AI(HPAI)의 발생으로 생산량은 약간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가금육은 다른 식육에 비해 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고, 가공품에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가금육의 생산량은 중기적으로는 증가경향 추이로, 2013년은 2005년에 비해 5% 증가한 1,152만8천톤(도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2. 신규가맹국에 의한 소비확대가 전망되는 가금육

2005년 EU의 1일당 가금육 소비량은 23.2kg이다. 2013년의 소비량은 2005년에 비해 0.9kg 증가한 24.1kg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가운데 EU 15개국에서는 0.8kg 증가한 23.7kg, 2004년 5월에 EU에 가맹한 신규 가맹국(10개국)에서는 1.6kg 증가한 26.2kg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EU 15개국보다도 신규가맹국에 있어서보다 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 3. 가금육의 수입은 증가경향 추이 전망

2005년의 가금육의 수출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91만3천톤이었다. 유럽위원회는 이 감소에 대해 세계 시장에서 저가 제품과의 경쟁과 그리고 미국 달러 및 브라질 레알에 대한 유로 고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6년의 수출량도 전년에 비해 4.4%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것은 가금육의 주요 수출국인 프랑스가 HPAI 발생과 함께 세계의 약 40개국 이상으로 수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05년의 가금육 수입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57만8천톤이었다. 이것은 동남

아시아, 특히 EU의 가금육 제2위 수입 상대국인 태국에서 2004년 HPAI가 발생해 동국으로부터의 가금육 수입이 일시 정지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2013년의 가금육의 수입은 2005년에 비해 11.4% 증가한 64만4천톤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유럽위원회는 이 중기적 증가에 대해 냉동 가금육이나 조제품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U의 가금육 수입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에서 전체의 85%를 점하고 있다.

#### 4. 수요 증가로 식용란 생산도 증가 전망

FAO에 의한 2004년 EU의 식용란 생산량

은 세계의 식용란 생산량의 약 10%를 점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 의하면 EU의 식용란 생산량은 710만4천톤으로 이것을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가 102만7천톤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89만3천톤, 독일 80만3천톤, 영국 78만9천톤, 이태리 78만3천톤의 순이다.

2013년의 식용란 생산량은 수요 증가로 2005년에 비해 4.8% 증가한 660만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2005년의 식용란 1인당 소비량은 13.6kg이고, 2013년의 소비량은 수요 증가 추이로 2005년에 비해 0.4kg 증가한 14.0kg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AW

**Talk! Talk! Talk!**

## 3,400만원하는 ‘최고가 닭’ ?



“어머, 정말 닭 같아요”

지난 9월 23일 중국 산둥성의 성도 지난의 한 보석가게를 방문한 고객들이 ‘삶은 닭’ 요리 모양으로 깎은 쇼우산(壽山)석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 의 민호우현에서 채굴된 쇼우산석은 세밀한 조각이 가능한 미옥(美玉)으로, 중국에서 매우 유명하다.

이 작품의 가격은 무려 28만위안(약 3400만원)에 달한다고 해 높은 가격과 섬세한 조각으로 사람들을 두 번 놀라게 했다.

- 출처 : 뉴시스